

‘중동 상황’ 실물경제 대책 점검

- 산업부 장관 주재 「제3차 실물경제 점검회의」 개최 (3.3.(화) 15시) -

산업통상부(이하 산업부) 김정관 장관은 한국시간 2.28(토)부터 이어진 ‘중동 상황’의 급변에 대응해, 3.3(화) 15시 필리핀 현지에서 화상 연결하여 「제3차 실물경제 점검회의」를 개최하고, 자원·에너지 수급, 무역·공급망·금융 및 업종별 영향을 점검하였다. 동 회의에는 외교부·기후부·해수부·금융위 등 관계부처와 석유공사·가스공사·코트라(중동본부)·에너지경제연구원, 대한상공회의소·한국경제인협회·한국무역협회 및 석유·화학·플랜트협회, 주미국·중국·일본·유럽연합(EU) 상무관 등이 참석하였다.

산업부는 사태 발생 당일(2.28, 19:00) 김정관 산업부 장관 주재로 자원 수급과 국내 업계 영향 등을 긴급 점검, 익일(3.1, 11시) 문신학 차관이 통상·무역·자원·안보 등 실물경제 영향을 2차례 점검한 바 있다. 오늘 3차 회의는 최근 일련의 중동 상황 전개 급박성을 감안하여, 현재 정상순방(필리핀)에 수행 중인 김 장관이 본격적인 호르무즈 해협 봉쇄 (호르무즈 통항의 실질적 위협 방해) 가능성까지도 염두에 두고, 석유·가스 수급 및 다양한 컨티전시 플랜 준비상황과 함께 무역·물류 및 석유화학·플랜트 등 주요 산업뿐 아니라 수출중소기업에 대한 영향과 대응 방안을 한번 더 점검하기 위한 것이다.

우선, 중동 지역에서 통항 상황을 확인하여, 주요 운항 일정의 진행여부 등을 점검하였는데, 특히 유조선 통항 상황 등을 면밀히 모니터링하여 호르무즈 해협이 본격적으로 봉쇄될 경우, 운항 일정 조정 등 대안을 마련하여 즉시 시행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당부하였다.

석유 수급의 경우, 충분한 비축유가 확보되어 있어 단기적인 영향은 제한적이나, 호르무즈 해협 통과 유조선 상황, 보험·운임 등 운송 여건과 중동 외 대체선 확보 및 지원방안을 점검하였고, 한편, 김 장관은 업계 차원에서 중동 외 물량 도입 등 추가 물량 확보를 추진하고, 만일 사태 장기화로 민간 원유 재고가 일정비율 이상 감소하는 등 수급 위기가 가시화되면 산업부는 자체 상황판단회의를 통해 비축유 방출을 결정하고, 여수, 거제 등

9개 비축기지에 비축된 석유를 국내 시장에 공급하도록 지시하였다. 또한, 1차 회의(2.28) 시 김 장관이 석유공사에 지시한 해외생산분 도입, 공동비축 우선구매권 행사, 비축유 방출 태세 점검 등 비상 매뉴얼상 조치사항도 상황 발생 시 언제든지 발동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 중이다.

아울러 가스 수급 관련, 김 장관은 가스의 경우 80% 이상을 非 중동산으로 도입하고 있고, 상당량 수준의 비축 물량을 보유하고 있어 카타르산 도입 물량이 전면 중단되더라도 상당기간 동안 대응이 가능한 수준이지만,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여 동남아, 호주, 북미 등 대체 공급선 확보 등 비상대책도 미리 준비할 것을 당부하였다.

한편, 일부 선박을 제외하고는 주요 컨테이너 화물 선사들이 2023년 홍해 사태 이후 수에즈운하를 이용하는 대신 아프리카 희망봉으로 우회하고 있어, 금번 사태에 따른 해상물류 영향은 아직까지 제한적인 상황이다. 다만, 중동 지역 수출비중(2025년 기준 총수출의 3%)은 크지 않지만, 사태 장기화 대비 호르무즈 해협에 인접한 중동 7개국향 수출 비중이 50% 이상인 수출기업(1,063개사)에 대한 근접 모니터링을 통해, 물류 및 대체시장 발굴을 위한 긴급 수출바우처 편성, 유동성 지원 등을 선제적으로 지원하기로 하였다.

석유·가스 이외에 소부장 품목의 대중동 의존도가 낮아 국내 산업 공급망 영향은 제한적이며, 반도체 측정·검사기기, 브롬·헬륨 등 14개 품목이 중동 의존도가 높으나, 반도체 제조용 검사부품·장비는 미국으로부터 대체 수입이 가능하고, 브롬 등 일부 정밀화학제품도 국내 생산, 재고 활용, 수급 대체 등을 통해 국내 공급망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확인하였다. 한편, 납사는 수입납사 중 호르무즈 이용 비중이 54%로, 상황 장기화시 수급 우려가 있어, 업계와 협의하여 납사 수출물량의 국내 전환, 대체 공급망 지원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플랜트의 경우, 현재 우리 기업 건설현장의 피해는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사우디, UAE, 카타르 진출기업과 긴밀히 소통하며, 현장 안전과 공급망 애로 등을 지속 점검할 예정이다.

전력수급 점검 결과, 현재까지 직접적 영향은 없으며, 한전과 발전공기업 등이 상황을 모니터링하며, 유가 급등, LNG 도입 차질 가능성에 대비하며, 산업부와 기후부 간 소통과 협조를 강화하기로 하였다.

이날 회의에는 주미국·중국·일본·EU의 상무관과 코트라 지역본부장(무역관장)도 화상으로 참여하여 주재국의 중동 상황 대응현황, 현지 기업 애로사항

및 잠재적 리스크 요인 등에 대해 공유하였으며, 김정관 장관은 중동 상황 장기화 시 국제적 공동대응과 관련하여 긴밀한 정보공유를 당부하였다.

산업부는 상황 발생 당일인 2.28(토) 즉시 양기욱 산업자원안보실장을 단장으로 소관 부서와 유관기관이 참여하는 「긴급대책반」을 가동 중이며, 3.3.(화)부로 현 중동상황을 엄중하게 판단하여 현재 대응조직(대응반 : 산업자원안보실장(반장))을 차관을 본부장으로 하는 「중동상황 대응본부」로 격상하고, 원유·가스 수급 위기관리 체제에 즉각 돌입하기로 하였다.

담당 부서 < 총괄 >	산업통상부 자원안보정책과	책임자	과 장 이민영 (044-203-5240)
		담당자	서기관 이윤섭 (044-203-5250)
		담당자	사무관 이성민 (044-203-5245)
		담당자	사무관 이재훈 (044-203-5241)
	산업통상부 석유산업과	책임자	과 장 김열규 (044-203-5220)
		담당자	사무관 김민성 (044-203-5223)
	산업통상부 가스산업과	책임자	과장(代) 한주현 (044-203-5231)
		담당자	사무관 김정미 (044-203-5233)
	산업통상부 산업공급망정책과	책임자	과 장 권덕중 (044-203-4920)
		담당자	사무관 김대건 (044-203-4914)
	산업통상부 무역안보정책과	책임자	과 장 정승혜 (044-203-4830)
		담당자	사무관 김지연 (044-203-4831)
	산업통상부 산업정책과	책임자	과 장 박태현 (044-203-4212)
		담당자	사무관 이수창 (044-203-5233)
	산업통상부 중동아프리카통상과	책임자	과 장 이종엽 (044-203-5720)
		담당자	사무관 최우진 (044-203-5723)
	산업통상부 무역정책과	책임자	과 장 이한철 (044-203-4020)
		담당자	사무관 홍경태 (044-203-4022)
	산업통상부 화학산업과	책임자	과 장 김건혁 (044-203-4930)
		담당자	사무관 박총희 (044-203-4932)
	기후에너지환경부 전력산업정책과	책임자	과 장 문양택 (044-203-3880)
		담당자	서기관 조영길 (044-203-3885)
	해양수산부 해운정책과	책임자	과장(代) 이승혁 (051-773-5715)
		담당자	사무관 양지영 (051-773-5725)